

Nurturing Early Childhood Creativity Based on Waldorf Education¹⁾

Choi, Byung-Ye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Chung, Yun-Kyoung²⁾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ABSTRACT >

Waldorf education views creativity as the most important method to develop individuals' personal, social and spiritual aspect. Characteristics of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lude raising physical foundation for memory, imitation and example as a principl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importance of rhythm and repetition, and the development of imagination for sensory experiences. In this paper, we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Waldorf education for nurturing early childhood creativity. According to this study, play is helpful i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of children when children do not follow the instructions of adults, but they play by means of their own needs. In addition, all educational activities should be able to maximize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magination. Therefore, any form of play or educational activity that limits children's imagination should be avoided. Finally, like an artist, a teacher should think freely and flexibly.

Key Words : Creativity, imagination, early childhood creativity,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
- 1)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of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20.
2) Corresponding Author: Chung, Yun-Kyoung, Professor,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0 Seohak-Ro, Wansan-Gu, Jeonju, Jeonbuk, Korea, 55101 / E-mail: ykchung@jnue.kr

발도르프 교육을 기반으로 한 유아 창의성 교육 방안 탐색¹⁾

최병연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정윤경²⁾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요약 >

유아 창의성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본질과 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론적 근거가 분명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창의성은 개인 내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개인적, 사회적, 영적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할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기억과 상상력을 위한 신체적 토대, 유아교육의 원리로서 모방과 본보기, 리듬과 반복의 중요성, 감각 체험을 통한 상상력 발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활동은 자유놀이, 생활작업, 예술 활동, 이야기 들려주기 등이다. 본 고에서는 발도르프 교육이 유아 창의성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아를 위한 놀이는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놀이는 유아가 성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은 유아의 상상력 발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어떠한 형태의 놀잇감이나 교육활동은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예술가처럼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고하며 영혼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주요어 : 유아 창의성 교육, 발도르프 유아교육, 상상력, 창의성, 유아 놀이

1) 이 논문은 2020년 전주교육대학교 국립대학교육성사업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2) 교신저자: 정윤경, 교수,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 E-mail: ykchung@jnue.kr

논문투고일자: 2020. 11. 9 / 심사일자: 2020. 11. 12 / 게재확정일자: 2020. 11. 27

I. 서론

창의성의 본질과 발달 양태에 관한 다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며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신장이 가능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 그리고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창의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창의성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에도 예외가 아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하나로 ‘창의적인 사람’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실현의 목표에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를 포함시킴으로써 3-5세 유아의 창의성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여러 연구들은 유아기 창의성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신장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Kang & Bak(2014)의 창의성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른 학교 급에 비하여 가장 많았고, 효과 크기(.430)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유아~대학생 전체 평균 효과크기 .341). 이와 유사하게 2009년부터 2015년에 실시된 유아 대상 창의성 프로그램 76편의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큰 크기의(SMD=1.00) 효과가 나타났다(Shin et al.,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창의성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유아들은 창의성을 발현할 만한 잠재성이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은 신장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놀이, 음악, 그림책, 슬라이드, 동시 짓기, 토의 활동 등 구체적인 소재나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Kang & Bak, 2014). 그러나 연구자가 명확한 이론적 배경 없이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창의성 기법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Seo, 2008). 사실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가 동의어가 아님에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창의성 프로그램이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 사고력 개발에 주력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로 이를 평가하고 있다(Choi, 2016). 이러한 비판은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창의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현대 유아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를 유아 창의성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슈타이너(Steiner)의 발도르프(Waldorf) 교육이다. 발도르프 교육은 슈타이너(1861-1925)가 1919년 ‘자유발도르프학교(Freie Waldorf Schule)’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1926년 첫 번째 발도르프학교에 관련했던 엘리자베스(Elisabeth)가 발도르프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된다. 스포트니크 쇼크 이후, 유아교육에

서는 인지발달에 중점을 두고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학교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발도르프교육은 이런 반대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69년 ‘국제발도르프 유치원연합’이 발족하고, 1970년대 발도르프 유아교육 사범대학이 설립되는 등 21세기 초 현재 세계 50개국에 166여개의 발도르프 유아교육 기관이 있다(Lang, 2013a). 발도르프 교육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기초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영혼, 정신적 특성)의 발달과 신체 발달을 관련지으면서 아동의 통합적 발달을 강조한다. 특히 발도르프 유아교육이 인간에 대한 통전적 이해, 예술로서의 교육을 통한 창의성 향상과 연결 지으면서 많은 유아교육 기관에서 발도르프 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창의성은 개인 내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개인적, 사회적, 영적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다(Huchingson & Huchingson, 1993). 또한, 발도르프 교육은 전통적인 성취도 검사는 물론 창의성, 사회성, 그리고 인간의 총체적 성장에 중요한 기타 역량에 있어서 비교적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Oberski, 2006). 특히 발도르프 학교는 예술과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교육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경험한 학생들에 비하여 창의성이 신장 될 것이라고 한다(Ogletree, 1996). 이와 유사하게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발도르프 교육이 유아의 창의성 신장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Cho, 2012; Nordlund, 2013; Ogletree, 1971, 1996; Seol, 2008). 이처럼 발도르프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도르프 교육은 1994년 9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인 창의성 교육 현장으로 인정받았다(Kim, 2001).

한편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미래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유아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 유아 중심이 되고 놀이가 중심이 되는 배움을 강조한다. 이것은 성인에 의해 계획된 놀이와 학습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아의 자유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하며, 교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놀이를 핵심으로 하는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미래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도르프 교육을 기반으로 한 유아교육은 발도르프 관련 교육을 받은 교사들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전통적 형태의 유치원에서 발도르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의 놀이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신장에 기여한다면,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수-학습 활동들을 전통적 형태 교육에 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연구 필요성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특징과 실재를 탐색하고, 이를 활용한 유아의 창의성 신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유아 창의성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발도르프 교육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실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발도르프 유아교육

1.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인간관

Steiner는 현대의 사고가 영혼-정신적인 것을 말할 때는 물질적인 것을 배제한 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말하고, 또 신체와 관련해서는 물질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as cited in Chung, 2004). 슈타이너에 따르면, 인간은 신체, 영혼, 정신의 통합적 존재다. 예컨대, 인간의 신체 중 머리 부분은 영혼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도 함께 관련된다. 영유아들의 머리 부분은 신체적 측면에서 완전하게 보이지만, 태어나기 이전 정신세계에서 경험한 영혼·정신적인 특성은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영혼적 특성은 꿈꾸는 상태요, 정신적 특성은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호흡과 순환을 담당하는 가슴 부분(슈타이너는 이 부분을 ‘리듬체계’라고 함)에서는 신체와 영혼의 특성이 깨어있고, 정신적 특성은 잠자는 상태이다. 팔다리에서는 신체, 영혼, 정신적 특성이 모두 깨어있다. 이상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의 신체, 영혼, 정신과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Childs, 1996).

<표 1> 신체·영혼·정신의 관련성에 대한 슈타이너의 관점

	신체적 표현	영혼적 표현	정신적 표현
신체(body)	신경/감각 체계	사고(thinking)	깨어있는 의식 (waking consciousness)
영혼(soul)	심장/폐 체계	감정(feeling)	꿈꾸는(반수) 의식 (dreaming consciousness)
정신(spirit)	신진대사/사지체계	의지(willing)	잠자는 의식 (sleeping consciousness)

2.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특징

가. 기억과 상상력을 위한 신체적 토대

태어나 젖니에서 영구치로 이를 가는 이같이 시기(7세 즈음)에는 신체적·영혼적·정신적 요소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물론 세 요소의 발달 정도는 다르다.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발달을 보이는 것은 신체이다. 또한, 이 시기만큼 외부세계에 대

해서 신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능을 하는 때는 없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독립적인 기관인 눈으로 보지만, 아이들은 몸 전체를 통해 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어린이는 신체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감각기관(a great sense-organ)’ 이라고 한다(Steiner, 1981). 유아는 나중에 사고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을 몸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신체로 경험한 것이 나중에 지적 능력의 토대가 된다(McKeen, 2013).

나. 유아교육의 원리로서 ‘모방’ 과 ‘본보기’

Steiner(1965)는 영유아기 교육원리로 모방(imitation)과 본보기(example)를 강조하였다. 아이들은 자기 주위의 환경을 모방하고, 모방을 통해 발달해 간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은 아이들이 모방할 만한 물리적·심리적·도덕적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태도, 마음가짐, 분위기까지 모방하기 때문에 심리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식사 전 감사기도, 촛불을 켜고 아름다운 천을 두른 후 모여 앉아 이야기 듣기 등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꾸미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 리듬과 반복의 중요성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리듬과 반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유아들은 뛰어오르거나, 통통 튀거나, 그네타기나, 냄비 속을 휘젓거나, 사물을 싸거나 풀거나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지칠 줄 모르고 반복한다. 유아들의 이러한 원초적 몸짓에 대한 욕구를 리듬적으로 구성해 낸 것이 손가락 놀이, 리듬 놀이, 라이젠이다.

리듬 놀이는 삶을 움직임의 예술로 형태화시킨 것의 하나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라이젠이고, 라이젠은 그리스 신전에서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Yoon, 2002),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다. 유치원의 하루, 일주일, 일 년을 계획할 때 중시되는 것도 리듬이다. 등원-자유 놀이-간식-모여 앉아 활동(주로 이야기 듣기)-바깥 놀이-하원 전 모여 앉기-하원으로 이어지는 일과 역시 수축-확장의 들숨 날숨의 리듬을 보여준다. 연간 계획 역시 절기와 계절별 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양극을 오가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리듬과 반복은 생활에 활기를 주는 ‘건강한 의미의 피로’ 를 아동에게 준다. 아이들은 리듬과 반복을 통해 안전감과 신뢰를 경험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처음 7년 동안 신체적 성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힘과 생활력을 강화시킨다(Compani, 2013).

라. 감각 체험을 통한 상상력의 발달

슈타이너는 감각을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로 파악하고, 감각 체험을 통한 상상력 발달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오감의 발달과 상상력을 관련지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런데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과도한 자극이 오히려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고 본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감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계 자극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오감 또는 육감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인상이 감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외부 자극에 의해 생기는 인상과 감각들을 주도할 수 있는 내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컨대, 옥수수 알 안에는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이 들어 있다. 이것을 아동은 감정과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Steiner, 1965) 함을 강조한다. 즉, 발도르프 유아교육이 강조하는 오감에 의한 체험은 외부 자극에 대한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 마음속의 그림들(인상)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고 창의성 발달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감각이 진정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환경이 가능한 한 천연적이어야 한다. 아이는 많은 장난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처음에 유아는 자신의 사지, 엄마 목소리, 요람 덮개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다가 조금 커서 가지고 놀 물질들은 유아의 영혼이 탄생 이전의 인상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기억하듯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연 물질들(나무, 양털), 단순한 형태, 무늬가 없는 선명한 색상의 것들이다(Seitz & Hallwachs, 2001).

Ⅲ. 발도르프 유아교육과 창의성 교육

1. 창의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가.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선도하고 창의성을 인간지능의 핵심으로 간주한 Guilford(1959)는 창의성을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고전적 정의를 포함하여, 창의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서 개인의 인지적 능력, 정의적 성향, 환경 및 과제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Choi, 2015)는 정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의성 연구와 관련된 4P, 즉 산출물(product), 과정(process), 사람(person), 환경(press)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점을 반영한 정의에 이르기까지 창의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된다.

창의성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창의성 정의에는 ‘새로움’ 과 ‘적절성(유용성)’ 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의 정의에 포함된 새로움과 적절성 역시 시대와 사회 문화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 교육은 창의성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학교에서 창의성을 산출물에 근거하거나 유용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산출물을 생성해내기 어렵거나 새로움이나 유용성의 정도가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성인에 비해 낮은 어린 학생들은 창의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유용한 창의성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Skiba et al.(2014)은 교실 내에서 활용할 창의성 이론은 탁월한 혹은 위대한 창의성을 의미하는 ‘Big-C’ 보다는 일상적 창의성을 의미하는 ‘little-c’ 접근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영역에 걸친 융통성을 허용하고, 영역 일반적이며 동시에 영역 특수적인 창의적 기능, 사고 및 문제해결을 하도록 허용하는 창의적 접근법을 정의하는 것이 교육 상황을 위해 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교실 상황에 적합한 창의성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Beghetto & Kaufman(2014)은 Big-C와 little-c와 같이 ‘산출물’ 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교사가 학생의 창의적 잠재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창의성의 역동성 측면과 발달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더 큰 창의적 산출을 유도할 수 있는 학생의 독창적인 통찰과 해석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창의성을 기존의 Big-C, little-c 구분에 덧붙여, mini-c(해석적 창의성)와 Pro-c(전문적 창의성)의 개념을 추가하여 ‘4-c’ 모형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해석적 창의성이란 ‘경험, 행동, 사태에 대해 참신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 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학생이 특정 주제를 발표할 때 다른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이나 원리를 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우가 그 예이다. 전문적 창의성은 Big-C라고 할 만큼 탁월한 성취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창의성을 인정받는 창의적 산출을 의미하며 박사학위 논문이나 우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이에 해당된다. Beghetto & Kaufman(2014)의 ‘4-c’ 모형은 산출물에 치중한 관점을 벗어나게 하고 학생들이 일상적 창의성에서 해석적 창의성과 전문적 창의성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교육 환경의 역할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교육에 적합한 창의성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서 연구자들은 ‘산출물’ 중심의 정의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즉 모든 창의성은 유형의 산출물로 나타난다는 가정은 창의성은 있지만, 그것을 아직 표현하지 못하거나 널리 인정받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편향적 관점이라는 것이다(Runco, 2010). 또한, 산출물에 근거하거나 유용성 측면에서 창의성을 정의하게 된다면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특히 유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산출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치원처럼 어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산출물이나 산출물의 유용성(적절성)보다는 새로움(참신함)에 초점을 두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일상적 창의성 혹은 평범한 창의성(little-c)의 관점에서 창의성을 개념화하는 것이 이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창의성의 구성요소

창의성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창의성 연구자들은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포함시켜 창의성과 관련된 모형이나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sikzentmihalyi(1999)가 제안한 창의성의 체제모형(systems model of creativity)에 따르면 창의성이란 영역(domain), 분야(field), 개인(individual)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차점에서 관찰될 수 있다. 여기에서 영역이란 음악이나 문학과 같은 특정 영역, 분야는 학술 단체와 같이 특정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 이론에서 개인은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의 체제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창의성은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처럼 창의성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 관점에 따른 이론들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창의성 구성요소와 관련된 한 가지 논쟁점은 창의성의 인지적 요인을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로 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 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Kaufman et al., 2011). 확산적 사고는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와 명백히 구분되는 사고 형태로 일반적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의 과학적 연구를 주장한 Guilford(1967)의 지능구조 모형(structure of intelligence)에 포함된 한 가지 요인으로,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에 포함되어 있어 창의성이 곧 확산적 사고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특히 유아기에서부터 학령기 학생들의 창의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대부분 Torrance(2008)의

TTCT(The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와 유사한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확산적 사고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아이디어는 참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Choi, 2016).

그러나 메타분석을 통해 확산적 사고와 창의적 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한 K. H. Kim(2008)의 연구에 따르면 두 요인은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r=.216$). 결론적으로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가 창의적 사고력, 특히 독창적 사고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는 동의어가 아니다(Runco, 1993). 실제로 창의성과 무관한 정신능력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의성의 인지적 요인은 수렴적 사고, 유추적 사고, 논리적 사고, 초인지, 문제 발견력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2. 발도르프 유아 교육활동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시사점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활동에는 자유놀이, 생활작업, 예술 활동, 이야기 들려주기 등이 포함된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주요 활동들이 창의성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유놀이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실내·외에서의 자유놀이가 주된 활동이다. 자유놀이란 조금의 형태를 갖춘 놀이 도구나 자연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소재만으로 하는 단순한 놀이를 말한다. 이러한 소재들은 생동감 있는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각 발달에 적합하고 아이들의 생명력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Walter-Baumgartner, 2013). 자유놀이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유아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해 놀이를 한다. 주된 활동으로는 요리활동, 목공, 수공활동, 상상놀이 등이 있다. 요리활동의 경우, 유아는 교사와 음식 만들기를 하거나 간식 및 식사 준비를 한다. 이때, 교사는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유아의 행동을 고쳐주기보다는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교사를 모방해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유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상상놀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아들은 나무토막을 쌓아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한다. 둥그란 나무토막이 전화기도 되고, 과자가 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운전대로 바뀌기도 한다. 어떤 유아는 교사가 동화시간에 들려주는 동화를 모델링하여 따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미하여 다른 이야기로 내용을 바꾸기도 한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상상놀이도 나타나지만, 연령이

낮거나 또래와의 놀이를 꺼리는 유아들은 탁자 위에 큰 천을 덮어 혼자서 집 놀이를 하기도 한다(Kang, 2009).

자유놀이는 단순히 어떤 사물과 함께 하는 놀이 행위가 아니고, 놀이에 임하는 아이의 내면 자세를 의미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활동한다.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 옆에서 작업을 해 나간다. 예를 들어, 탁자 꾸미기, 인형만들기 등을 한다. 이것은 교사의 일상적인 작업들이 유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단 교사들은 유아들의 모든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Kang & Choi, 2019).

발도르프 교육에서 추구하는 놀이가 창의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Kim(2015)는 2-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도르프 유아교육에 따른 실외놀이의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결과, 실외놀이는 영유아의 문제 상황 해결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Chou(2014)는 발도르프 유치원에 다니는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지원 창의적 놀이(parents-support creative play) 활동을 20주 동안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TTCT 검사의 독창성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Kang(2009)은 전통적인 발도르프 프로그램과 자연주의 감각 발달 놀이를 적용한 발도르프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7차 유아교육 과정 중심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4세 유아를 대상으로 8주 동안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도르프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창의성이 7차 유아교육 과정을 기초로 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발도르프 교육을 기반으로 한 놀이는 유아의 창의성 신장에 효과가 있다. 유아의 놀이가 창의성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발도르프 교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놀이는 창의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Kim & Jang, 2015).

그러나 발도르프 교육을 바탕으로 한 자유놀이는 일반적 형태의 놀이와 차이가 있다. 먼저 일상적인 상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놀이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발도르프 공간에 있는 놀잇감은 최대한 간단하고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 즉 완벽하게 만들어진 장난감 자동차나 실물과 유사한 인형은 제공되지 않는다. 천연 재료만 놀잇감으로 사용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교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유아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수동적으로 만들의 자신만의 인상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와 미완성된 놀잇감을 활용한 자유놀이는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된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데, 놀잇감이 실물과 유사하지 않고 덜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놀이를 창의적으로 하는, 즉 창의적 놀이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창의적 놀이에서 유아들은 상상 세계를 탐색하고 마스터하며, 유아

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Chou, 2014).

또한, 발도르프 공간에서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하는 동안 개입하지 않고, 유아 옆에서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는 유아들의 상상 세계를 수용해 준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유아에게 많은 질문을 지양하고, 특히 폐쇄형 질문을 하지 않는다. 금지와 부정보다는 유아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유아들이 상상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을 동안에는 방해하지 않는다. 유아들의 질문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많은 설명으로 답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Kang & Choi, 2019).

교사의 지나친 개입과 폐쇄형 질문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rikson(1994)에 따르면 유아기(3-6세)는 심리적으로 주도성(initiative)을 발달시키는 단계로, 또래들 간의 놀이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노력하지만 좌절될 경우 죄책감(guilty)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놀이를 격려해 줌에 따라 유아의 주도성은 발달될 것이고 그에 따라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더 많이 발현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Yoon(2018)은 기존의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개선 방향을 교사의 계획과 의도로부터 자유로운 발도르프 자유놀이에서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나. 생활작업

발도르프 교육은 손으로 하는 작업과 활동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에 한정되지 않는다. 슈타이너는 손으로 하는 작업들이 실생활의 유용성 뿐 아니라, 후에 사고력 발달로 연계됨을 강조한다.

지적 능력 육성에 직접 관계함으로써 지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툴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은 서툰 지력에 유연성이 없는 관념과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의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유연성 있는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사물의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안다면, 손가락을 완전히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한 총체로서의 지력이 생겨난다는 목표를 가지고 손가락을 발달 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Calgren, 1986, p. 49).

생활작업은 “생활 속에서 삶을 위해 행하는 모든 작업 행위”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의식주와 관련하여 직접 손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 사용하는 일뿐 아니라, 물건을 고치거나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쓰는 일 등 유아들과 삶을 살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노작활동이 포함된다(Yoon, 2011). 발도르프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손으로 하는 활동 및 놀이를 ‘노작 교육’, ‘수작업’이나 ‘수공활동’, 창조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예술작업’이나 ‘문

화작업’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생활작업은 ‘모방’과 ‘본보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교사가 직접 행하고 유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의 행위를 모방하며 스스로 작업에 참여하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사가 작업의 주체이지 유아가 직접 작업에 참여해야 하거나 작업을 통해 기술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법은 교사가 하는 작업 그대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아의 요구와 작업에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것일 뿐, 유아에게는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생활작업은 유아들의 자유놀이 상태와 조화롭게 하여 너무 긴 시간이 걸리거나 너무 짧은 시간으로 해서 유아의 자유놀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생활작업은 발도르프 유아교육이 중시하는 반복적인 리듬 속에서 이루어진다.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활작업은 유아들에게 ‘아, 선생님이 어제와 같이 오늘도 저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구나.’ 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안정감은 아동의 존재 깊은 곳에 생성되어 아동과 함께 성장하며,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고, 고요함을 확산시킨다(Jaffke, 2000).

이상에서 살펴 본 생활작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인위적으로 유아의 놀이를 규정하지 않고,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유아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특징은 창의성 신장을 위해 요란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유아의 진짜 자유놀이를 허용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Yoon(2018)이 유아의 자유놀이를 지원하는 영유아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으로 교사가 반드시 어린이들의 놀이를 지도해야 하고 교구는 어린이들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게 하며, 자유놀이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교사의 생활작업과 같은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생활로 이루어지도록 확장하는 점은 개정된 누리과정을 실천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강조하는 생활작업이 유아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도 있다. Hwang(2006)의 연구에서는 발도르프 수공예 놀이 프로그램을 6주간 경험한 5-6세 유아 집단의 창의적 표현력(그림표현의 독창성, 상징성, 생동감, 조화로운 화면 구성) 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하는 작업들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창의적인 표현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예술 활동

발도르프 교육에서 예술은 삶에 대한 탐구,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자연스런 삶의 방식이다(Nordlund, 2013). 이런 점에서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유아의 상

상력과 창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슈타이너의 말대로 교육이 곧 예술이 될 것을 추구한다.

유아들이 반복과 리듬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시구나 노래 구절들, 반복된 구절과 함께하는 손 놀이와 라이겐, 간단한 5음계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악기 ‘라이어’를 활용한다. 반복적인 리듬을 살린 간단한 손 놀이를 하다가, 교사가 바느질이나 뜨개질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는 바느질과 뜨개질을 하기도 한다. 슈타이너는 팔다리의 움직임과 멜로디, 좋은 소리, 언어의 리듬감과의 연관성을 아이에게 맞게 개별적으로 연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요일별로 자유 선택 활동을 다르게 하는데, 이 활동들에는 선이나 형태를 그리는 포르멘(Formen/form drawing), 색을 체험하게 하는 습식 수채화, 조소 같은 예술적 활동이 활용된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하는 습식 수채화는 젖은 도화지 위에서 색의 퍼짐을 체험하게 하며, 빨강, 파랑, 노랑과 같은 세 가지 색만 사용하도록 한다. 발도르프의 습식 수채화 활동 전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유아들을 산책하도록 격려한다. 유아들이 수채화 활동을 할 때 몰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자연 속에서 산책함으로써 자연의 색과 빛을 충분히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유아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 전체가 모여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심호흡을 하는 동안 작은 키티하프를 연주하거나 허밍으로 낮은 음악을 읊조린 후, 유아들이 조용해지면 오늘 물감을 위해 준비한 동화를 구연으로 들려준다. 유아들이 경청하는 동안 물감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동화 내용에 맞추어(예컨대, 빨강이 노랑과 만나는 내용에서 색을 섞는 등) 간단한 시범을 보여준다. 동화가 끝난 후 교사는 유아 한 명씩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붓과 물에 담가놓은 도화지를 꺼내 나무 화판 위에 놓고 커다란 스펀지로 물기를 제거하여 유아가 이제 페인팅을 시작하도록 격려한다...(Lim, 2005, p. 314).

의식을 치르듯이 이루어지는 습식 수채화 활동을 포함한 발도르프 유치원의 미술교육은 교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의 원천이면서, 내면의 창조적 자아를 일깨우고, 감정의 교육을 통해 통합된 자아 형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Cho, 2012). 특히 습식 수채화는 유아에게 색채 경험을 통한 환상의 힘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유아 내면에 있는 색의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다(Seol, 2008). 습식 수채화 활동 과정에서 교사는 대체로 주제나 표현 방법을 유아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설령 제시하거나 유아 스스로 재현적 주제를 표현하고자 할지라도 젖은 종이와 물감이 가진 물리적 특성(비정형성)으로 인해 색과 형태는 연속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를 찾는 작업이 이루어진다(Cho,

2012).

발도르프 유치원의 예술 활동은 유아 창의성 신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Cho(2012)는 발도르프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을 5세 유아 집단에 11차시 투입한 결과,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은 유아의 창의성 전체와 하위 요인 중에서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요인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9)은 발도르프 예술 활동을 20회기 동안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누리과정에 따라 예술 경험 영역 활동을 실시한 비교집단에 비하여 실험 집단 유아의 창의적 미술 표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2009)은 슈타이너의 교육이론에 기초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을 24회 적용한 결과, 실험집단의 창의성(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습식 수채화 활동에서 교사는 유아에게 말로 과정을 설명하고 지시하기보다는 직접 모범을 보이고, 동시나 동화를 이용한 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초월적 심미감’을 보여준다(Lim, 2005). 이것은 발도르프의 예술로서의 교육이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갖는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슈타이너는 예술로서의 교육을 위해, 자율성, 유연성, 창의성을 갖춘 예술가로서 교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교육에서도 예술 활동을 강조한다. 예술가처럼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고하며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발도르프의 교사상은 아동의 총체적 발달은 물론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창의성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학생이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예측자이다(Beghetto & Kaufman, 2014). 따라서 교사 자신이 예술가가 되어 창의적인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유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아들의 상상력을 안내하고 지지하는 발도르프 교사들은 유아의 창의성 신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 이야기 들려주기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도 동화(들려주기)는 주요 활동의 하나다. 유아들은 특히 옛날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도 오전 자유놀이나 실외 자유놀이를 마치고 귀가 전, 교실로 들어가 둘러앉아 이야기 듣기 시간이 있다. 이 활동에서 교사는 형겅 인형 몇 가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탁자 위에 이야기에 어울리게 나무로 만든 집과 울타리를 놓아두기도 한다. 때로 교사는 둘러앉은 공간을 무대처럼 꾸며 인형극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고요함이 요구되며, 유아들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의 세계로 옮겨가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빠져든다.

슈타이너는 유아교육에서 이야기 활용을 강조한다. 유아가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비스럽게 유아의 영혼에 침투해서, 유아가 훗날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Chung, 2000).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동화, 우화 등의 이야기 들려주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야기야말로 신비로 가득찬 인간과 세계의 특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다른 유치원에서 이야기와 이야기 들려주기를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발도르프만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 역시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관점에 기초한 교육과 관련된다. 교사는 높고 과장된 어조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런 목소리로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러한 발도르프 스토리텔링은 유아들에게 모델링을 통하여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의 자발적인 다양한 상상놀이를 나타난다(Kang, 2009).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림책을 보여주지 않고, 간단한 인형을 사용하거나 인형극 형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발도르프 유치원의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은 전통적인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구체적인 실물이나 그림 없이 교사의 언어로 듣는 이야기를 통해 유아들은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림동화보다는 언어로 전달하는 구연동화가 유아의 상상력을 더 많이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Kim, 2003). 동화 들려주기는 동화 자체가 갖는 내용뿐 아니라, 이야기 들려주기 과정에서 성인(교사, 부모)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 정서 발달에도 효과적이며 창의력 증진에 기여한다(Kim, 1997). 더욱이 발도르프 유치원의 이야기 들려주기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유아들의 영혼을 발달시키는 힘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Chung, 2000). 즉, 발도르프 유치원의 이야기 들려주기는 유아교육에서조차 너무 일찍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며, 정신적 세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아 영혼을 황폐화하는 현대교육에 영혼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인의 속도로 유아를 재촉하지 않으면서, 유아가 이 세계에 가지고 온 것을 펼쳐나가게 함으로써 유아의 상상력 발달과 창의성 신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유아기는 창의성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유아기가 창의성 발달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만일 이 시기에 창의성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증진시키기 어렵고, 나중에 창의성 교육을 받는다 해도 유아기 때 창의성 교육을 받았던 사람만큼

창의성이 계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Jeon & Kim, 2012). 이에 따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유아 창의성 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 창의성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본질과 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론적 근거가 분명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에 의해 창의성 교육현장으로 인정 받을 만큼,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발도르프 교육이 유아 창의성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아 창의성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첫째, 유아를 위한 놀이는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특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놀이, 생활작업, 예술 활동, 이야기 들려주기 모두 놀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실 놀이 중심의 교육활동은 발도르프 유아교육만의 독특한 특성은 아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기본 방향 역시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배움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놀이’를 강조하는 것은 유아교육이 놀이중심 교육을 표방해왔지만, 사실은 정해진 목표 아래 교사가 답을 정해 놓고 아이들의 욕구와 의사를 무시한 교사중심이었다는 것이다(Lee, 2015). 어떤 활동이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기며, 놀이 활동을 하는 자체가 만족을 주어야 한다. 슈타이너는 ‘유아교육기관의 임무는 아이들의 활동이 놀이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일상의 일들을 그 공간으로 끌어들이며 행하는 것’임을 강조(Jaffke, 2013)하면서 유아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자유놀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놀이는 유아가 성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놀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창의성은 놀이로부터 나오며, 창의적인 사람들은 놀이를 즐기는 성향이 있다. 실제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놀이가 제안되고, 최근에 많은 기업체들이 놀이를 업무에 도입하고자 한다(Runco, 2010). 그러나 놀이가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창의성 신장을 목적으로, 즉 수단으로 활용되는 놀이는 본질적 의미의 놀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놀이란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이며 개방적이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놀이처럼 보이는 활동도 성인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Choi, 2015). 따라서 유아의 놀이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발도르프 교육의 놀이에 관한 관점은 교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되고 있는 놀이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창의성, 상상력 발달과 교구 및 놀잇감과와의 관계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기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유아들을 위한 놀잇감들은 대부분 실물과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유아의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발현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아기 상상력은 창조의 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감각인지와 다각도의 체험에 의존한다. 아이는 감각세상에서 자유롭게 되고, ...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결코 어떤 곳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정해진 행동을 하도록 제시하는 유아용 소프트웨어는 아이의 상상력을 축소시키며, 훗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능력을 위한 토대를 놓지 못한다. 세 부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놓지 않은 자유로운 놀잇감, 색채와 형태가 제한적이지 않은 자연물을 이용한 놀잇감이 최고의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유아의 창조적인 힘을 자극한다(Lang, 2013b, p. 225).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유아들의 상상력 발달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상상력은 유아의 신체 발달과 뇌가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유아기에 상상력을 건전하게 기른 유아는 정서적이고 창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Im, 2004). 발도르프 유치원을 경험한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발도르프 교육이 다음과 같이 자녀의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상상력이 풍부해졌어요. 이야기를 꾸미면서 놀이를 해 나가는 것들이 다른 유치원 아이들과 확연히 달라요. 그 아이들은 나이가 많아도 이야기를 이끌어 가지 못하더라고요(Im, 2004, p. 360).

셋째,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 교사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 힘을 강조한다. 교사는 예술가처럼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고하며 영혼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교사들은 유아에게 특별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고 유아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들을 일상을 수행해 나간다. 이때 유아는 안정감을 느끼고, 교사를 모방하며 자기 의지에 따라 놀이와 생활작업을 한다. 즉,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태어나서 처음 세상을 만날 때, 유아에게 호의와 믿음의 울타리가 돼 주는 친밀한 관계 형성의 대상이다. 슈타이너는 이런 교사의 역할을 ‘애정 어린 권위자’라고 하였다(M. S. Kim, 2008). 발도르프 관점에서 볼 때, 태어나서 처음 7년은 겨우 신체만 깨어있는 상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유아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의 창의성과 유아의 창의성 간에는 어느 정도 정적 상관성이 있다(H. Kim, 2008). 창의

적인 교사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나 행동을 더 쉽게 발견하고 창의성과 관련된 행동에 개방적일 것이다. 발도르프 교사들은 예술가처럼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유아의 총체적 발달을 인도하는 영혼의 안내자가 되도록 교사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사들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해 유아의 창의적 잠재력을 쉽게 발견하고 창의적 표현을 지지하고 격려할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유아교육에서 당연시해온 놀이 계획자로서 교사 역할 대신 유아 존재 자체에 세심하게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의 양을 축소하고 교육과정을 대략적으로만 제시한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변화하는 유아의 존재와 놀이 과정에 주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을 위한 교구나 놀잇감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놀잇감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아의 놀잇감과 환경을 특정 부분의 발달을 위한 ‘기능적 접근’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프로피엘의 ‘은물’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전인적 유아 발달을 돕는 것인데, 총체적인 고찰 없이 교구와 은물이 특정한 부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만 강조된 적이 있다. 유아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는 놀잇감과 물리적 환경은 성장해가는 유아가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즉 여백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유아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 교사 자신의 창의성과 상상력 발달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교육에 열려있어야 한다. 교사의 자기교육이란 유아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외부에서 어떤 이론을 배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부터,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와 발달을 이론에 가두지 않고, 함께 삶을 살아가며 성장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창의성은 인생에서 중요한 습관이며 태도이다(Sternberg, 2014). 여타의 습관처럼 창의성은 발달될 수도 있고 제지될 수도 있다. 특히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이 총체적으로 발달하는 유아기는 특정 습관이나 태도 형성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창의성 발현 경험이 추후 창의적인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발도르프 교육을 기반으로 한 유아 창의성 신장 방안이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eghetto, R. A., & Kaufman, J. C. (2014). Broadening conceptions of creativity in the classroom. In R. A. Beghetto, & J. C. Kaufman (Eds.), *Nurturing creativity in the classroom* (pp. 191-205). (K. H. Lee, et al.,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 국문: Beghetto, R. A., & Kaufman, J. C. (2014). **교실에서의 창의성 교육** (이경화, 김명숙, 김정희, 김혜진, 박숙희, 성은현, 윤초희, 이명숙, 최병연, 태진미 공역). 학지사. (원서출판 2010). <https://doi.org/10.1017/cbo9780511781629.010>
- Calgren, F. (1986). *Education towards Freedom*. Lanthorn Press.
- Childs, G. (1996). *Education and beyond*. Floris books.
- Cho, H. (2012). Effects of Waldorf water color painting wet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self-regulation by gender and self-effica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69-93. ☞ 국문: 조현(2012). 발도르프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성별에 따라 유아의 창의성 및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69-93.
- Choi, B. Y. (2015).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and creativity. *Global Creative Leader, 5*(3), 3-22. ☞ 국문: 최병연(2015). 놀이와 창의성간의 관계 탐색. **Global Creative Leader, 5**(3), 3-22.
- Choi, B. Y. (2016). Educational application of research about developmental trends of creativity.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27*(2), 387-402. ☞ 국문: 최병연(2016). 창의성 발달 경향 연구의 교육적 적용. **초등교육연구, 27**(2), 387-402.
- Chou, M. J. (2014). In celebration of creativity play: An exploration on children's aesthetic sensibility and creativity in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vista de Cercetare și Intervenție Socială, 47*, 165-179.
- Chung, M. R. (2000). *Fairy tale, myth, mystery in Waldorf education* (pp. 76-92). Spirit in Action, vol.3. ☞ 국문: 정미리(2000). **발도르프교육에서의 동화, 신화, 신비** (pp. 76-92). 행동하는 정신 제 3호 2000년 가을.
- Chung, Y. K. (2004). *Waldorf education*. Hakjisa. ☞ 국문: 정윤경(2004). **발도르프 교육학**. 학지사.
- Compani, M. L. (2013). Das freie spiel- ein quell der bildung. In M. L. Compani (Ed.), *Waldorfkindergarten heute* (pp. 126-146). (J. H. Lee et al., Trans.). Spirit in Actin.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국문: Compani, M. L. (2013). **발도르프 유아교육: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 (이정희, 이소윤, 장영심, 오윤선, 김현경, 남현미, 박주미 공역). 행동하는 정신. (원서출판 2011).

- Csikzentmihalyi, M. (1999). Implication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R.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pp. 313-335).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807916.018>
- Erikson, E. H. (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WW Norton & Company.
- Guilford, J. P. (1959). Traits of creativity. In H. Anderson (Ed.), *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 (pp. 142-161). Harper.
- Guilford, J. P. (1967).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McGraw-Hill.
- Huchingson, R., & Huchingson, J. (1993). Waldorf education as a program for gifted stud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8(4), 400-419. <https://doi.org/10.1177/016235329301600406>
- Hwang, M. J. (2006). *The effects of Waldorf handicraft play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eative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국문: 황민정(2006). **발도르프 수공예놀이가 유아의 감성지능 및 창의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Im, G. S. (2004). A case of parent's experience on Waldorf kindergarten educ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6, 351-375. ㉮ 국문: 임경신(2004).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험 사례. **한국유아교육연구**, 6, 351-375.
- Jaffke, F. (2000). *Spielen und arbeiten im Waldorfkindergarten* (S. Y. Yoon, Trans.). Verlag Freies Geistesleben.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국문: Jaffke, F. (2000).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에서의 놀이와 작업** (윤선영 역). 창지사. (원서출판 1991).
- Jaffke, F. (2013). Die arbeiten der erwachsenen im waldorfkindergarten. In M. L. Compani (Ed.), *Waldorfkindergarten Heute* (pp. 157-178). (J. H. Lee et al., Trans.). Spirt in Actin.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국문: Jaffke, F. (2013). **발도르프 유아교육: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 (이정희, 이소윤, 장영심, 오윤선, 김현경, 남현미, 박주미 공역). 행동하는 정신. (원서출판 2011).
- Jeon, K. W., & Kim, K. S. (2012). *Creative education for the early childhood*. Jungmins. ㉮ 국문: 전경원, 김경숙(2012).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유아 창의성 교육**. 정민사.
- Kang, H. S., & Bak, B. G. (2014).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creative program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4), 735-759. ㉮ 국문: 강현숙, 박병기 (2014).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8(4), 735-759. <http://doi.org/10.17286/KJEP.2014.28.4.09>
- Kang, I. G. (2009). *The effects of Waldorf early childhood program with naturalistic ensory-development play on multiple intelligence and crea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국문: 강인구(2009). **자연주의 감각발달놀이**

- 를 적용한 발도르프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다중지능과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Kang, I. G., & Choi, K. (2019).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Inamu. ☞ 국문: 강인구, 최경(2019).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아이나무.
- Kaufman, J. C., Plucker, J. A., & Baer, J. (2011). *Essentials of creativity assessment* (S. M. Lee, & H. H. Lee, Trans.). John Wiley & Sons.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국문: Kaufman, J. C., Plucker, J. A., & Baer, J. (2011). **창의성 평가: 검사도구의 이해와 적용** (이순목, 이효희 공역). 학지사. (원서출판 2008).
- Kim, B. N. (2019). *The effects of Waldorf artistic activity on self-esteem and creative art expression in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국문: 김빛나(2019). **발도르프 예술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창의적 미술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Kim, H. (2008).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internal/external motivation, and teacher's creativity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4), 283-298. ☞ 국문: 김호(2008). 유아의 내·외적 동기 및 어머니와 교사의 창의성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83-298.
- Kim, H. A. (1997). Effect of story telling program on creativity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1), 65-90. ☞ 국문: 김현아(1997). 동화들려주기가 유아의 창의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창의력교육연구**, 1(1), 65-90.
- Kim, I. S. (2003). *Effect on an infant's imaginative power of fairy tale presentation methods: An orally narrated fairy tale and an illustrated fairy t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인숙(2003). **동화제시방법 (구연동화, 그림동화)이 유아의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Kim, J. E. (2001). Arbeit ueber kindergarten umgebung fuer kreative entwicklung des Kindes. *Journal of Research*, 27(2), 396-405. ☞ 국문: 김정임(2001)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 **연구논문집**, 27(2), 396-405.
- Kim, J. Y., & Jang, Y. S. (2015). The effects of constructive play using unstructured play materials on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creativity. *Journal of Parent Education*, 7(2), 15-32. ☞ 국문: 김지윤, 장영숙(2015) 비구조적 놀잇감을 활용한 구성놀이가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2), 15-32.
- Kim, K. H. (2008). Meta-analyses of the relationship of creative achievement to both IQ and divergent thinking test scores.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42(2), 106-130. <https://doi.org/10.1002/j.2162-6057.2008.tb01290.x>

- Kim, M. S. (2008). *An ethnography of the role of the team teachers in mixed age classroom as the "Loving Authority" in terms of Waldorf principles* (pp. 35-68). Korean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1st summer seminar. ☞ 국문: 김명숙 (2008). **혼합연령, 팀티칭 학급에서의 교사역할: 문화기술적 연구- 발도르프 교육원리의 의미에서 "애정어린 권위자" 로서의 역할수행을 중심으로** (pp. 35-68). 한국발도르프 영유아교육학회 제 1회 하계세미나 자료집.
- Kim, S. H. (2015). Practice research on the educational effects of outdoor play in Waldorf'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of Waldorf Education*, 7(1), 1-20. ☞ 국문: 김선희 (2015). 발도르프유아교육에서 실외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발도르프교육 연구**, 7(1), 1-20.
- Lang, P. (2013a). Erziehung im vorschulalter. In M. L. Compani (Ed.). *Waldorfkindergarten Heute* (pp. 34-64). (J. H. Lee et al., Trans.). Spirt in Actin.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국문: Lang, P. (2013a). **발도르프 유아교육: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 (이정희, 이소윤, 장영심, 오윤선, 김현경, 남현미, 박주미 공역). 행동하는 정신. (원서출판 2011).
- Lang, P. (2013b). Per mausclick durch die kindheit? In M. L. Compani (Ed.), *Waldorfkindergarten Heute* (pp. 205-214). (J. H. Lee et al., Trans.). Spirt in Actin.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국문: Lang, P. (2013b). **발도르프 유아교육: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 (이정희, 이소윤, 장영심, 오윤선, 김현경, 남현미, 박주미 공역). 행동하는 정신. (원서출판 2011).
- Lee, K. S. (2015). *A review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n early childhood curriculum* (pp. 19-47). Spring conference papers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국문: 이기숙(2015). **한국 유아교육과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망** (pp. 19-47). 한국 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Lim, B. Y. (2005). A study on approaches to painting lessons related to aesthetic sensibility of young children: Bankstreet, Reggio Emilia, and Waldorf.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19(3), 297-325. ☞ 국문: 임부연(2005). 유아기 심미감 발달과 연계한 물감수업의 탐구: 뱅크스트리트, 레지오 에밀리아, 발도르프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19(3), 297-325.
- Mckeen, C. (2013). Die metamorphose von wachstumskräften in denkräfte. In M. L. Compani (Eds.), *Waldorfkindergarten Heute* (pp. 65-80). (J. H. Lee et al., Trans.). Spirt in Actin.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국문: Mckeen, C. (2013). **발도르프 유아교육: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 (이정희, 이소윤, 장영심, 오윤선, 김현경, 남현미, 박주미 공역). 행동하는 정신. (원서출판 2011).
- Ministry of Education (2019). *Understanding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Ministry of

- Education. ㉮ 국문: 교육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 Nordlund, C. (2013). Waldorf education: Breathing creativity. *Art Education*, 66(2), 13-19. <https://doi.org/10.1080/00043125.2013.11519211>
- Oberski, I. (2006). Learning to think in Steiner-Waldorf schools. *Journal of Cognitive Education and Psychology*, 5(3), 336-349. <https://doi.org/10.1891/194589506787382431>
- Ogletree, E. J. (1971).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creative thinking ability of public and private school pupils in England, Scotland, and German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3(2), 301-302. <https://doi.org/10.1080/00224545.1971.9922475>
- Ogletree, E. J. (1996). *The comparative status of the creative thinking ability of Waldorf education students: A Survey*. ERIC Processing ED 400948.
- Runco, M. A. (1993). Divergent thinking, creativity, and giftedness. *Gifted Child Quarterly*, 37(1), 16-22. <https://doi.org/10.1177/001698629303700103>
- Runco, M. A. (2010). *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K. W. Jeon, et al., Trans.). Elsevi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국문: Runco, M. A. (2010). **창의성: 이론과 주제** (전경원, 이경화, 고진영, 김정희, 박숙희, 박춘성, 성은현, 유경훈, 전경남, 최병연, 하주현, 한순미, 함정현 공역).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07).
- Seitz, M., & Hallwachs, U. (2001). *Montessori oder Waldorf* (M. H. Lee, & N. E. Kwak. Trans.). Spirt in Actin.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국문: Seitz, M., & Hallwachs, U. (2001). **몬테소리 교육학과 발도르프 교육학** (이명환, 광노의 공역). 밝은누리. (원서출판 1996).
- Seo, M. O. (2008). The effectiveness of creativity training using method of meta-analysi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4), 27-55. ㉮ 국문: 서미옥(2008). 메타분석을 통한 창의성 훈련의 효과 검증. **교육학연구**, 46(4), 27-55.
- Seol, H. J. (2008). *The effect of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ea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국문: 설희정(2008). **발도르프 유아교육이 유아의 감성지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Shin, H. K., Jung, K. J., & Park, C. S. (2016).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creative program for young child. *The Journal of Creative Education*, 16(1), 41-61. ㉮ 국문: 신혜경, 정광조, 박춘성(2016). 유아 창의성 프로그램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창의력교육연구**, 16(1), 41-61.
- Skiba, T., Tan, M., Sternberg, R. J., & Grigorenko, E. L. (2014). Roads not taken, new roads to take: Looking for creativity in the classroom. In R. A. Beghetto, & J. C. Kaufman (Eds.), *Nurturing creativity in the classroom* (pp. 252-269). (K. H. Lee, et al., Tran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㉞ 국문: Renzulli, J., & De Wet, C. (2014). **교실에서의 창의성 교육** (이경화, 김명숙, 김정희, 김혜진, 박숙희, 성은현, 윤초희, 이명숙, 최병연, 태진미 공역). 학지사. (원서출판 2010). <https://doi.org/10.1017/cbo9780511781629.013>
- Steiner, R. (1965). *The education of the child in the light of anthroposophy*. Rudolf Steiner Press.
- Steiner, R. (1981). *A Modern art of education*. Rudolf Steiner Press.
- Sternberg, R. J. (2014). Teaching for creativity. In R. A. Beghetto, & J. C. Kaufman (Eds.), *Nurturing creativity in the classroom* (pp. 394-414). (K. H. Lee, et al.,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㉞ 국문: Renzulli, J., & De Wet, C. (2014). **교실에서의 창의성 교육** (이경화, 김명숙, 김정희, 김혜진, 박숙희, 성은현, 윤초희, 이명숙, 최병연, 태진미 공역). 학지사. (원서출판 2010). <https://doi.org/10.1017/cbo9780511781629.020>
- Torrance, E. P. (2008).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Figural forms A and B*. Scholastic Testing Service.
- Walter-Baumgartner, J. W. (2013). Rhythmisch-musikalische sprech-sing und bewegungsspiele. In M. L. Compani (Ed.), *Waldorfkindergarten Heute* (pp. 157-178). (J. H. Lee et al., Trans.). Spirt in Actin.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㉞ 국문: Walter-Baumgartner, J. W. (2013). **발도르프 유아교육: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 (이정희, 이소윤, 장영심, 오윤선, 김현경, 남현미, 박주미 공역). 행동하는 정신. (원서출판 2011).
- Yoon, D. S. (2009).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effects of arts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Rudolf Steiner's education theory for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㉞ 국문: 윤덕순(2009). **슈타이너 교육이론에 기초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Yoon, S. Y. (2002).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guide*. Moonum Education. ㉞ 국문: 윤선영(2002).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첫걸음**. 문음사.
- Yoon, S. Y. (2011). Alltagsarbeit im Waldorfkindergarten, Charakteristiken der Alltagsarbeit, im Waldorfkindergarten. *Research of Waldorf Education*, ㉞(1), 21-48. ㉞ 국문: 윤선영 (2011). 발도르프유아기관에서 생활작업의 특성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발도르프교육 연구**, 3(1), 21-48.
- Yoon, S. Y. (2018).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supporting real free play-focused on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edicting the future society* (pp. 163-166). Regular conference papers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8. ㉞ 국문: 윤선영(2018). **진짜 자유놀이를 지원하는 영유아교육과정-미래사회를 예측한 발도르프유아교육을 중심으로** (pp. 163-166).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8.